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오경희¹⁾ 나은경²⁾ 박의향³⁾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생활시간과 문제행동의 각 하위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의 영향이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연구 결과로는 첫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으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놀이방해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놀이방해행동에서, 전체 유아와 남아 모두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평일이용시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유아와 남아의 경우,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체 유아와 남아의 경우,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보다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를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이 진정한 '유아 존중의 정책'인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유아들이 장시간 또는 장기간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것에 관해서 다측면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놀이방해 행동

I. 서론

최근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라, 유아기로부터 폭력예방

- 1)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임대우강사
- 2)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수료
- 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

을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오경희, 2013)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내용별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 교수 방법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정희영·방승미·유희진, 2012).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아동 폭력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것이 아니듯이, 폭력예방교육으로 인성교육의 강조 역시 새로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인성교육을 분리할 수 없듯이, 인성교육은 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대응 전략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더욱이 최근 종일제로 운영되었던 어린이집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기준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겨진 영·유아들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린 시기의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은 어느 시기보다 좋은 인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교육기관을 감옥에 비유하며, 감옥을 정신병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설명(Foucault, 2003)하거나, 교육을 소외된 환경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인간화 과정으로 보는 탈학교론자들이 아니더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공간의 지배는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만을 줄 수 없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적 차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예를 들면, 김현주, 1995; 임병순, 2004, 조윤진, 1993). 이들 연구들은 “질적 수준이 낮은 유치원의 유아의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황현주, 1991)와 관련성을 가진다. 즉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이 영·유아들의 문제행동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변인과 가정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 취업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양육과 교육의 중심 역할을 기관으로 이양하면서 기관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은 유아들의 삶의 터전이며 (인성)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기관변인과 관련된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며, 주로 기관변인에서 보육시간(김미자, 1996; 김숙령, 1997; 박성연·고은주, 2003; 장영숙·고선희, 2005)과 프로그램 특성(김숙령, 1997; 양혜영·정승원, 1999)을 다루고 있다. 실제적으로 기관변인은 기관에서

4) 2003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발행된 한국의 주요 학술지 및 학위논문 152편의 논문을 통해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의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의 관련 변인을 분석한 논문을 이순자·유수옥(2012)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생활하는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보육시간은 프로그램 특성뿐만 아니라 기관의 모든 인적·물적 환경과 참여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특성은 기관의 문화적 풍토와 함께, 교육과정의 분류화와 구조화(Bernstein, 1973)에 따른 지식의 특성이나 교수방법,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 등 기관의 인적·물리적·교육적 환경을 총 망라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변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관에서 얼마나 생활했는가는 그 기관의 모든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기관에서의 머무는 시간은 종단적으로는 이용시작시기를 횡단적으로는 하루 이용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변화와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육아문제로 인한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영·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⁵⁾ 그리고 이로 인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장시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Harman, 1982)이라는 우려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시간 운영, 즉 아이들이 기관에 머무는 시간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장시간 머무는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들(장영숙·고선희, 2005; Harman, 1982; Belsky, 2001; Vandell & Wolfe, 2000)을 살펴보면, 기관 운영시간에 따른 5세 유아의 전체 문제행동점수는 6시간 이상이 3-6시간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밝히는 연구(하영례·정효은, 2009), 어린이집에서의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종일제 보육아동보다 스트레스 전체 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에도 연령, 운영시간, 이용시간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김혜경·류왕효, 2006), 공립유치원의 시간연장반보다 종일반에서 수업하는 유아가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박영미, 2009), 유치원 종일제 유아의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의 평균이 반일제 유아의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의 평균보다 높다

5)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 유치원 운영시간 현황을 분석한 박은혜(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유치원의 전체 운영시간은 아침돌봄 시간을 제외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이 71%로 나타났으며 13시간을 운영하는 곳도 9.2%에 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2012)에서 발표한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간연장학급(아동을 7:30~19:30까지 보육하는 종일제 이후 17:30~24:00 보육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7,844개이며 총 39,313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2011)의 통계 결과인 2010년 시간연장 학급 운영 어린이집 6,535개,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였던 영유아 4,675명과 비교해보면 시간연장 보육 이용 유아가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는 연구(황윤세, 2010), 만 5세 종일제 유아가 반일제 유아보다 스트레스 행동이 높으며 친사회적 행동이 낮다는 연구(김희형, 2002) 등이 있다.

특히, 장영숙·고선희(2005)는 유치원의 질이 좋을수록 과잉행동과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그리고 전제 문제행동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반일제보다 종일제 유아에게서 전제 유치원 환경의 질과 문제행동이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기관의 양적(운영시간) 차원과 함께 질적 차원(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한다. 왜냐하면, 유아교육기관의 질이 우수하다면 종일제 교육은 유아 발달과 학습(박화윤·안라리·하양승, 1998)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측면(Gullo, 1990)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질 낮은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은 스트레스 행동을 많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박화윤·안라리·하양승, 1998), 오히려 신체적·사회 정서적으로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김혜경·류왕효, 2006)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유아교육 시작 시기 역시 기관에 머무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 3세까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가 가장 높으며(Watamura, Donzella, Alwin, & Gunnary, 2003), 보육시설기관의 환경이 스트레스의 기준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Ahnert et al., 2004)와 유아의 문제행동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3세이며, 그 이후에는 줄어든다는 보고(Campbell, 2007)는 유아의 연령이 문제행동과 관련성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유아교육시기와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나타내며,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차이가 문제행동의 억제 요인 또는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영·유아의 외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변인과 유아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 양육효능감 및 신념, 교사-유아관계와 관련되어 있다(이순자·유수옥, 2012). 그러나 문제행동의 초기 시작은 모두 이후 문제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된다. 말하자면 또래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불안에 대한 유아들의 경험(Corsaro, 1997)이 문제행동의 잠재적 요인이 되어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에서의 생활시간을 독립변인으로 두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특히, 기관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와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어떤 문제행동을 유발하는지를 명증성있게 접근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시발점으로써 본질적인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생활시간과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요 연구문제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과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에 대한 놀이방해행동이 남녀 유아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과 놀이방해행동의 상관관계가 남녀 유아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이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2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5차년도에 일반조사의 조사 참여율은 1703명으로 전체 패널 기준 79.2%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분석 자료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담임교사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 조사 자료로 1,018명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는 교사 조사자료 1,018명은 CAPI 면접 조사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1,64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7%가 참여하여 다른 조사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교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본 연구가 설정한 주요 연구변인인 아동특성변인이 교사가 평정한 기관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이 육아지원기관의 시작시기 및 이용시간이므로, 부모가 평정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가정변인이 개입될 수 있기에 기관에서 교사가 평정한 자료가 보다 타당할 것이다.

2. 분석도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 변인은 한국아동패널의 2012년 제5차년도 자료의 6개 주제(아동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정책 특성) 중 아동특성 및 부모 특성 주제와 관련된 하위 변인을 사용하였다.

아동특성 주제에서는 일상생활(교육·보육기관 이용 시간)과 사회·정서발달(놀이 상호작용)에서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부모 특성 주제에서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실제(육아지원기관 이용 시작 시기)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일상생활(교육·보육기관 이용시간 및 기관이용시작시기) 변인

1) 교육·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의 학원 등) 이용시간

2012년 5차년도 조사의 아동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신체발달, 일상생활,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 발달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교육·보육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변인은 유아의 일상생활의 일과 활동시간에 대한 내용에서 조사되었으며 30분 단위로 응답하였다.

2) 기관이용시작시기

기관이용시작 시기 변인은 2012년 5차년도 조사의 부모특성 부분에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 중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실제(육아지원기관 이용 시작 시기)와 관련된 변인을 설정하였다.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은 4차년도 조사가 시작된 시기인 2011년 7월부터 5차년도 조사 종료 시기인 2012년 10월까지의 응답을 병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나. 또래 놀이 상호작용(놀이방해-공격행동) 변인

유아의 문제행동은 2012년 5차년도 조사의 아동특성 중 사회·정서 발달 부분의 하위 변인 중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서 일부 설정하였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측정도구인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는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의 3가지 하위범주로 나뉘는데, 문항 구성으로는 놀이방해 하위범주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차원에 관한 내용이고, 놀이 상호작용 하위 범위는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 통제, 언어적 주장과 관련된 긍정적 행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은 4점 척도인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교사용 Web 설문지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IPPS의 해당변인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의 3변인 중

문제행동으로 특징지어지는 놀이방해변인 문항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를 구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에 대해 놀이방해행동에 대해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과 놀이방해행동의 상관정도를 알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놀이방해행동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집단으로 나뉜 이분변수일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는 통계적 방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별도의 기본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 분석 자료의 특성에 제한되지 않는다(김석우, 2010).

Ⅲ. 연구결과

1. 기초분석

가. 기술통계량

유아의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과 놀이방해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1>과 같다.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은 4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부터 3.70점까지이며 평균은 2.10점($\sigma=.46$)이다.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는 4개월부터 55개월까지이며 평균은 38.82개월($\sigma=8.68$)이고,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은 4시간부터 14시간까지이며 평균은 7.23시간($\sigma=1.43$)이다.

〈표 1〉 놀이방해행동과 육아지원기관이용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놀이방해행동	1017	1.00	3.70	2.10	.46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1643	4	55	38.82	8.68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1645	4	14	7.23	1.43

나.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에 대한 남녀별 정도 차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에 있어서 남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과 같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를 살펴보면, 남아(M=38.87)와 여아(M=38.78)간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에서도 남아(M=7.26)와 여아(M=7.20) 간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유아의 육아지원기관이용에 대한 남녀별 정도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남아	527	38.87	8.45	0.20
	여아	491	38.78	8.93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남아	527	7.26	1.45	0.75
	여아	491	7.20	1.43	

다. 놀이방해행동의 군집분석

다음은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를 구별하기 위하여 3개의 군집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놀이방해행동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대한 군집분석과 기술통계

구분	높은 유아	중간 유아	낮은 유아	합계
남아	131	238	158	527
여아	55	186	250	491
합계	186(18.27%)	424(41.65%)	408(40.08%)	1018(100%)
평균	2.79	2.23	1.64	2.10
표준편차	.20	.17	.21	.46

$\chi^2=56.97$, ($df=2$, $p=.000$)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3개의 군집을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M=2.79)는 186명(18.27%), 놀이방해행동이 중간인 유아(M=2.23)는 424명(41.65%),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유아(M=1.64)는 408명(40.08%)로 분류된다.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 186명중 남자는 131명(70.43%), 여자는 55명(29.57%)이고, 놀이방해행동이 중간인 유아 424명중 남자는 238명(56.13%), 여자는 186명(43.87%)이고,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유아 408명중에 남자는 158명(38.73%), 여자는 250명(61.28%)이다. 놀이방해행동 정도에 따른 χ^2 검증의 결과, $\chi^2=56.97$ ($p=.000$)이므로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 중에는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유아 중에는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에 대한 놀이방해행동 정도 차이

가. 유아(남아와 여아 모두 포함)의 놀이방해행동 정도 차이

놀이방해행동이 중간인 유아를 제외하고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에 있어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를 살펴보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M=37.68)는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유아(M=39.69)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t=-2.66$, $p<.01$). 그리고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M=7.50)는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유아(M=7.08)보다 육아지원기관평일이용시간이 길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3.32$, $p<.01$). 즉,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가 낮은 유아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르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유아의 육아지원기관이용에 대한 놀이방해행동 정도별 차이

구분	놀이방해행동	N	평균	표준편차	t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높은 유아	186	37.68	9.00	-2.66**
	낮은 유아	408	39.69	8.34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높은 유아	186	7.50	1.36	3.32**
	낮은 유아	408	7.08	1.45	

** $p < .01$

나. 남아의 놀이방해행동 정도 차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와 낮은 남아로 구분하여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를 살펴보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M=37.81)가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남아(M=40.78)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르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3.16, p<.01$). 그리고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에서는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아동(M=7.48)이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아동(M=7.00)보다 평일이용시간이 길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t=3.13, p<.01$). 즉,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가 낮은 남아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르고,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남아의 육아지원기관이용에 대한 놀이방해행동 정도별 차이

변인	놀이방해행동	N	평균	표준편차	t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높은 남아	131	37.81	8.58	-3.16**
	낮은 남아	158	40.78	7.43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높은 남아	131	7.48	1.32	3.13**
	낮은 남아	158	7.00	1.38	

** $p < .01$

다. 여아의 놀이방해행동 정도 차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여아와 낮은 여아로 구분하여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에서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여아와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여아 간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여아의 육아지원기관이용에 대한 놀이방해행동 정도별 차이

변인	놀이방해행동	N	평균	표준편차	t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높은 여아	55	37.36	9.99	-1.21
	낮은 여아	250	39.00	8.81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높은 여아	55	7.56	1.45	1.86
	낮은 여아	250	7.15	1.50	

** $p < .01$

3. 놀이방해행동과 육아지원기관이용의 상관계수

가. 유아(남아와 여아 모두 포함)의 각 변인별 상관계수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과 낮은 유아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단순상관계수의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놀이방해행동·육아지원기관평일이용시간($r=.14$)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놀이방해행동·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r=-.11$)와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육아지원기관평일이용시간($r=-.2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p<.01$).

<표 7> 놀이방해행동과 육아지원기관이용의 상관계수

구분	놀이방해행동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놀이방해행동	1	-.11**	.14**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11**	1	-.20**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14**	-.20**	1

** $p < .01$

나. 남아의 각 변인별 상관계수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과 낮은 남아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단순상관계수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놀이방해행동·육아지원기관평일이용시간($r=.18$),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육아지원기관평일이용시간($r=-.18$), 놀이방해행동·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r=-.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8> 남아의 놀이방해행동과 육아지원기관이용의 상관계수

구분	놀이방해행동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놀이방해행동	1	-.18**	.18**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18**	1	-.18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18**	-.18**	1

** $p < .01$

다. 여아의 각 변인별 상관계수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여아과 낮은 여아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단순상관계수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간·육아지원기관평일이용시간($r=-.2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놀이방해행동·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r=-.07$)와 놀이방해행동·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r=.11$)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여아의 놀이방해행동과 육아지원기관이용의 상관계수

구분	놀이방해행동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놀이방해행동	1	-.07	.11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07	1	-.22**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11	-.22**	1

** $p < .01$

4.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이 유아의 놀이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를 대상으로 여아를 제외한 유아(남아와 여아 모두 포함)와 남아의 경우, 놀이방해행동이 육아지원기관이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유아(남아와 여아 모두 포함)의 놀이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검증 및 아동의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과 낮은 유아의 분류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와 같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χ^2 의 값은 14.97,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1이다. 그러므로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높은 유아, 낮은 유아)을 나누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놀이방해

행동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68.9%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유아를 예측하는 확률은 99.3%로 높게 나왔으나,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를 예측하는 확률은 2.2%로 낮게 나타났다.

〈표 10〉 모형검증 및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대한 분류의 정확도

놀이방해행동	관찰치	예측치		정확도
		높은아동	낮은아동	
높은 유아	4	182	186	2.2%
낮은 유아	3	405	408	99.3%
전체	7	587	594	68.9%

-2LL=723.47, $\chi^2=14.97(df=2, p=.001)$, Nagelkerke $R^2=.04$

놀이방해행동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및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Wals=4.16, p=.041$)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Wals=8.01, p=.005$)가 유의수준 .05에서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을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와 낮은 남아를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B)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독립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낮은 유아에서 높은 유아로 분류될 확률이 회귀계수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각 독립변수에서 1단위 높은 점수를 받은 유아는 낮은 유아에서 높은 유아로 갈 확률이 육아지원이용시작시기에서는 0.98배, 육아지원평일이용시간에서는 1.20배 정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보다 평일이용시간이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Wals	자유도	Exp(B)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02	.01	4.16*	1	.98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18	.06	8.01**	1	1.20
상수항	-1.27	.67	3.61	1	.28

* $p < .05$, ** $p < .01$

나. 남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12>은 모형검증 및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과 낮은 남아의 분류정확도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χ^2 의 값은 16.61,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이다. 그러므로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의 관여 행동에 의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와 낮은 남아를 나누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아동의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과 낮은 남아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60.6%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유아를 예측하는 확률은 73.4%로 높게 나왔으나,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를 예측하는 확률은 45.0%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 모형검증 및 남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대한 분류의 정확도

놀이방해행동	예측치			정확도	
	높은 남아	낮은 남아	전체		
관찰치	높은 남아	59	72	131	45.0%
	낮은 남아	42	116	158	73.4%
	전체	101	188	289	60.6%

-2LL=381.50, $\chi^2=16.61(df=2, p=.000)$, Nagelkerke $R^2=.075$

놀이방해행동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및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Wals=6.86, p=.009$)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Wals=6.66, p=.010$)가 유의수준 .05에서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을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남아과 낮은 남아를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B)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독립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높은 남아에서 낮은 남아로 분류될 확률이 회귀계수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각 독립변수에서 1단위 높은 점수를 받은 남아는 높은 남아에서 낮은 남아로 갈 확률이 육아지원이용시작시기에서는 0.96배, 육아지원평일이용시간에서는 1.27배 정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육아지원기관이용시작시기보다 평일이용시간이 남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남아의 놀이방해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Wals	자유도	Exp(B)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	-.04	.02	6.86**	1	.96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	.24	.09	6.66*	1	1.27
상수항	-.33	.96	.12	1	.72

* $p < .05$, ** $p < .01$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생활시간과 문제행동의 각 하위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생활시간(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이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으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 중에는 남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놀이방해행동이 낮은 유아 중에는 여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놀이방해행동 정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유아와 남아 모두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육아지원기관 이용평일이용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육아지원기관 이용평일이용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체유아의 경우와 남아의 경우에는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르며 평일이용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 유아와 남아의 경우, 놀이방해행동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며, 평일이용시간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전체 유아와 남아의 경우,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전체 유아와 남아의 경우,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

기보다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를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예를 들면, 송진영, 2010; 이순형·이옥경·민미희, 2006; 조정애, 2000; Fagan, 1990)과 비교적 일치한다. 그러나 성에 따라 표출되는 문제행동의 형식이 다를 뿐(Slee, 1986), 여아들에게도 문제행동은 나타난다. 또한 성은 단일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며(오경희, 2005), 유아 초기에 기질의 다양한 하위변인에서 성차를 보이고(우수경, 2007), 이 시기에 유아교육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Grossman & Grossman, 1994)는 점에서, 육아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남아들(장영숙·조정애, 2000)의 경우,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아의 기질과 환경의 부조화가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Barron & Earls, 1984)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일일 기관에 머무는 시간 역시 길어짐에 따라 유아, 특히 남아들의 문제행동 발현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평일이용시간이 남아들의 놀이방해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기관적 특성과 상관없이 장시간 기관에 머물러 있을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보다 공격적인 놀이와 행동을 즐기는 남아들”(오경희, 2007; Corsaro, 1997; Thorn, 1993)의 경우 놀이방해행동 역시 잦을 수 있다. 특히, 기질적으로 공격성과 활동성이 강한 남아들은 문제행동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기에 행동 특성에 의한 문제행동이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전체 유아 및 남아들의 놀이방해행동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 최근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강화하면서 누리과정과 함께 방과 후 과정도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유아들은 장시간 유아교육기관에 남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유아들을 위한 것인지?’, ‘무상보육도 좋지만, 융통성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에서 유아들의 개별성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지 국가와 부모의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에 의한 교육정책’

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아를 위하는 ‘유아 존중의 교육정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문제행동이 성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들의 상호작용은 또래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때로는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행동을 고착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특히 신체적인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폭력은 신체적인 공격적 행동의 형식으로 생의 초기에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전달되며, 이는 폭력 형식으로써 지속되기 때문이다(Farrington, 1993; Moffitt, 1993) 따라서 유아 초기에 “또래집단 속에서 상호 호혜적 형식을 내면화”(Parsons, 1965)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념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미래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써 인성교육의 한 방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요컨대, 위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유아들이 장시간 또는 장기간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것에 관해서 다측면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교육에서의 병리적 현상들을 볼 때, 유아교육 역시 그 책무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비록 유아기에 일어나는 일그러짐이 성인들의 시각에서는 작은 흔들림에 불과할지라도, “조기에 일어난 폭력 행위가 이후 모든 폭력을 예견한다”(Farrington, 1991)는 견지에서, 영유아와 관련된 교육정책은 평생교육의 근간이 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자들로 하여금 발달론적 생태학적 입장에서, 유아들이 기관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어떻게 내면화하며, 공격적 행동이 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며, 이 과정에서 기관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해 나가는데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라 여긴다.

참고문헌

- 김미자(1996). 영·유아기 타아경험이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우(2010). SPSS AMOS활용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숙령(1997).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협력관계에 대한 토론. 제 3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53-59.

- 김현주(199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관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류왕효(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5, 207-225.
- 김희형(2002).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들의 스트레스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고은주(2003).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 박영미(2009).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육시설 부모의 요구 조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2), 241-255.
- 박은혜·박신영·최혜운(2013).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본 전국 유치원 운영시간 현황분석. **교육과학연구**, 44(2), 97-118.
- 박화윤·안라리·하양승(1998). 종일제와 반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의 유아 스트레스 행동. **유아교육연구**, 18(20), 135-155.
-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 송진영(2010). 학령전환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생태학적 변인 탐색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혜영·정승원(1999). 양육환경과 기관의 질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4), 141-158.
- 오경희(2005). 유아의 젠더 형성과정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탐색. **유아교육논총**, 14(2), 129-150.
- 오경희(2007). 계층이 다른 두 유치원 또래문화의 젠더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경계와 공유의 특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7(2), 51-76.
- 오경희(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에 관한 탐색: '돌봄'의 특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4), 323-347.
- 우수경(2007). 유아의 성, 기질, 사회적 능력 및 자기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27-451.
- 이순자·유수옥(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6), 127-156.
- 이순형·이옥경·민미희(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 임병순(2004). 시간 연장제 유치원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고선희(2005). 종일제와 반일제 유치원 유아들의 문제행동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9(1), 81-101.
- 장영숙·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 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정희영·방승미·유희진(2012). 유아인성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2(5), 277-296.
- 조윤진(1993). 유치원 질적 연구에 따른 유아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 기질 및 교사 기질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례·정효은(2009). 기관변인에 따른 5세 유아의 문제행동. **한국영유아보육학**, 57, 171-191.
- 황윤세(2010).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행동과 적응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2), 187-203.
- 황현주(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종일제 유아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hnert, L., Gunnar, M., Lamb, M. E., & Barthel, M. (2004). Transition to child care: Associatio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fant negative emotion and cortisol elevations. *Child Development*, 75, 639 - 650.
- Barron, A. P., & Earls, F. (1984).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social factors to behavior problems in three-year-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22-33.
- Bernstein, B (1973). *Class, codes and control, 1*, London: R.K.P.
- Campbell, S. B.(2007). **유아의 문제행동**. 민성혜(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Corsaro, W.(1997). *The sociology of childhood*. Thousand Oaks, California: Pine Forge Press.
- Fagan, J.(1990). The intevention between child sex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behavior problem of preschool-age child in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9, 2-12.
- Foucault, M.(2003). **감시와 처벌**. 오생근(역). 서울: 나남출판.
- Grossman, H. & Grossman, H. S. (1994). *Gender Issues in education*. Allyn and Bacon.

- Gullo, D. F.(1990). The changing family context: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ll-day kindergartens. *Young Children*, 45(4), 35-39.
- Harman, D.(1982). *Extended-day kindergarten vs. half-day kindergarten achievement difference*. (ERIC Document R Production Service. No. ED 215 784).
- Parsons, T.(1965). The school class as a social system: Some of its functions in American society. In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A reader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A. H. Halsey, J. Floud, and C. A. Anderson (1965). New York: Free Press.
- Slee, P. T.(1986).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other factors to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17, 104-112.

·논문접수 10월 23일 / 수정본 접수 4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17일

·교신저자: 오경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임대우강사, 이메일 ohkhe@hanmail.net

Abstract

Effects of Entry Age of Childcare Institutions and Hours of Usage Per Day on the Play Disturbance Behavior

Kyunghee Oh, Eunkyung Na and Ueihyang Park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ant's use of support center for infant childcare and sub-variables of behavior problem. Specifically, we analyze how time spending at the center (i.e., first day of the usage and hours of usage per day) affects the infant child's play disturbance behavior and see how gender can moderate this relationship.

First, we find that the earlier the usage of the support center, the higher infant child's play disturbance behavior. In addition, longer hours of usage during a day implies more disturbance behavior of child. In particular, male child shows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the disturbance behavior compared with the female child.

Second, the effect of hours of usage are stronger than that of starting day of usage of both total children and male children.

Third, for the case of total children and male children, earlier the first day of usage results in the higher level of play disturbance behavior. Longer hours of the usage per day also presents the same results.

Lastly, hours of the usage per day rather than the first day of the usage play significant role for distinguishing children with the high level of disturbance behavior from the ones with the low level among total children and the males.

Based on the results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esented. We urge to reflect whether the present direction of infant child care supporting policy is really appropriate. In addition it is asserted that multifaceted approaches about infants' long-term stay in institution are needed.

Key words: Support Center for Infant Childcare, starting day of the usage, hours of the usage a day, infant child's Play Disturbance Behavior